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¹⁾이 저소득가정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Seesaw & Sw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 on the
Adaptive Behaviors of You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황혜정(Hye Jung Hwang)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esaw & Sw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 on the positive changes of you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Seesaw & Swing program was developed by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Hwang et al., 2009).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534 3~6-year olds (177 in the service group, 357 in the control group) from low-income families. The instrument used was the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econd edition (Sparrow, Cicchetti, & Balla, 2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eesaw & Swing intervention program produced positive effects in all of the domain areas under examination : namely, the communication abilities, life skills, socialization, physical development, and adaptive behaviors of young children. In conclusion, the Seesaw & Sw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an be said to be an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program which goes some way towards end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of poverty in Korea.

Key Words : 시소와그네(Seesaw & Swing), 조기중재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 저소득가정(low-income family).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문의 전문임.

¹⁾ ‘시소와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인 영유아통합지원사업명이며,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말함.

²⁾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 Jung Hwa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94-6 Yiui-Dong, Yeongtong-Gu, Suwon, Kyonggi-Do 443-760, Korea
E-mail : jinhwang@kgu.ac.kr

I. 서 론

현대사회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확대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며 이에 따라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나, 태어난 가정의 열악한 환경과 부모의 낮은 수준에 따라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빈곤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만한 능력이나 지식, 동기가 부족하여 충분한 지도감독이나 적절한 보살핌, 그리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아동은 발달과 교육에 필요한 풍부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다양한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이처럼 빈곤 아동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며, 중산층의 다른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혹은 절대적으로 교육, 사회, 경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러므로 빈곤가정의 아동은 타고난 결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자극과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자극해 주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김향숙, 2001)과 인지발달(Campbell & Ramsey, 1994), 언어발달(Edwards, 1989), 사회·정서적 발달(Nievar & Luster, 2006)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져 낮은 학업성취도와 비행 등의 행동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빈곤 아동의 발달상의 어려움은 평생 동안 학습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취학전 학습준비 부족 및 교육 자원의 부족은 교육과정의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격차를 확대시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약받

거나 목표 상실에 이르게 한다(김경희·황혜정, 1998; 김명순·이미화, 2006; 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1, 인쇄중; 김영희, 2001; 옥경희·김미애·천희영, 2001; Alexander & Entwisle, 1988; McLoyd, 1998).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다시 연결된다(구인회, 2003; 김재엽·이익섭·박수경, 1998; 박현선, 199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Cocoran, 2000; McLoyd, 1998).

이러한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주목받아왔다(Heckman & Lochner, 2000).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언어, 행동,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Waldfoegel, 2006). 빈곤가정의 경우 최저 생계비와 물품 등을 지원받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인 자극, 즉 조기교육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중재란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인 활동을 말한다.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조기에 경험하지 못하는 아동이 인지적 발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중재의 목적이다. 어린시기에 실시되는 조기교육중재란 아동이 공식적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기 이전 시기에 보완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를 말하며(Ramsey & Ramsey, 1992, 2006), 가정과 양육환경에서 부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성취를 증진시키고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Ramsey & Ramsey, 2006).

교육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김명순, 2009, 재인용) : 중재는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시작되어야 효과적이므로 취학전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최소 8-9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야 효과적이다; 중재는 기간뿐만 아니라 실시 횟수나 실시 시간이 길수록 효과적이므로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되어야 한다; 중재의 내용은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중재의 내용은 아동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화에 민감하고 친숙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식의 중재(예 : 부모훈련, 강연)보다 훈련된 인력에 의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시되는 중재(예 : 가정방문, 기관방문)가 효과적이다; 중재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이다; 중재는 외형적, 물리적, 경제적 지원보다는 아동과 가족의 행동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 내용 중심이어야 한다; 중재는 빈곤가정 아동이 문제를 나타내기 전에 예방적 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중재로 인해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아동의 인지, 언어, 학업 기술 등을 계속해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위스타트(We Start) 교육중재 프로그램이다(김명순 · 정미라 · 배선영, 2006; 김명순 · 황혜정 · 유지영 · 안현숙, 2006). 위스타트 운동은 2004년 5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We)이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http://westart.joins.com/>). 위스타트 운동은 교육, 복지,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여 기존의 단발적인 시혜성 아동복지 사업과 다르게 대상 아동이나 해당 가정에 대한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일회성의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 복지, 건강 분야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근본적인 자활 의지를 길러 주려는 것이다. 즉 저소득가정과 0-12세 자녀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상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스타트 사업은 경기도, 강원도, 서울, 전라남도에서 도비(道費)와 시비(市費)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시작된 첫 시도이며, 위스타트 운동을 모델로 하여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가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 수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와 각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관(官) 주도하의 사업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인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조기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한 이 사업은 처음에는 SB7(Success By 7)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출생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가 인생의 발달을 좌우하므로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와는 다르게 학령전 영유아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집중한다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 후 ‘시소와그네’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밀어주고 끌어주어 신체 · 인지 · 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발달을 성취하도록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즉 시소와그네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이 영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장혜림, 2010).

시소와그네 사업은 2004년 시작된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모델로 하였고 위스타트와 마찬가지로 건강, 복지, 교육 부분으로 중재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중 보육부분의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적의 발달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자 유아를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인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황혜정·김명순·안효진·안현숙·유지영·김수희·조수영, 2009).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효과적인 교육중재의 조건들(김명순, 2009)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위스타트 교육중재 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을 가진다. 위스타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영아를 위한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과 유아를 위한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즉 영아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소집단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황혜정, 2011). 시소와그네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 가정방문과 센터에서의 교육, 부모를 위한 교육, 소집단활동 등을 묶어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에게는 전인적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달을 촉진시키고, 부모에게는 자녀양육지식 및 상호작용 방법을 전달해주는 직, 간접적 지원을 통해 유아의 최적의 발달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운동이 시작된 이래 각종 계층비교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이들

연구의 결과는 빈곤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중재프로그램들이 빈곤 아동들의 열등함을 보상해 주려고 시도되었으며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도 전개되었다. 미국 Carolina Abecedarian Project(Campbell & Ramsey, 1994),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Schweinhart, Barnes, & Weikart, 1993). Head Start(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2010), 영국의 Sure Start(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 Taggart, 2010) 등이 수행되었는데,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프로그램이 끝난 지 20년 후까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이나 부모에 비해 훨씬 더 성취지향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어린이집의 포괄적보육서비스(이은혜 외, 2008)와 위스타트 교육중재 프로그램(박찬화, 2010; 황혜정, 2011) 효과검증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소와그네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발달적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유아의 의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적응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5개 센터(서울, 대전, 구미, 군산, 의정부)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서비스 집단		비교 집단		전체	
		n	%	n	%	N	%
연령집단	만 3세	75	14.1	125	23.4	200	37.5
	만 4세	58	10.9	129	24.1	187	35.0
	만 5세 이상	44	8.2	103	19.3	147	27.5
성	남아	94	17.6	193	36.1	287	53.7
	여아	83	15.6	164	30.7	247	46.3
시범지역	서울 마포구	23	4.3	97	18.2	120	22.5
	대전 중구	45	8.4	65	12.2	110	20.6
	경북 구미시	63	11.8	68	12.7	131	24.5
	전북 군산시	18	3.4	67	12.5	85	15.9
	경기 의정부시	28	5.3	60	11.3	88	16.5
수급권	기초수급	49	9.2	80	15.0	129	24.2
	차상위	128	24.0	277	51.8	405	75.8
전 체		177	33.1	357	66.9	534	100.0

서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3-6세의 서비스집단 유아 177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유아 357명, 총 534명의 유아이다.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유아들이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달하도록 도와주고자 개발되었다(황혜정 외, 2009). 이를 위해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중재 활동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녀양육방법을 가르쳐주어, 유아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기본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대상은 37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와 그 부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활동 내용을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아가 함께 활동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와 함께 교육중재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 양육자(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가 대상이며, 가능하면 부모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총 12주제 아래, 한 주제 당 4주의 활동을 묶어 총 48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육중재 프로그램들과는 차별성 있게 구성되었다. 한 주제 아래 4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패키지로 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즉 매 주마다 다양한 대상(성인과 유아)과 다양한 장소(센터와

〈표 2〉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활동 종류 및 방법

주	활동종류	대상	활동 방법	소요시간
1주	센터교육	부모	부모만 센터에 와서 주제에 대해 부모교육을 받음.	60분
2주	가정방문	부모 유아	중재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와 유아에게 교육활동을 지도함.	40-50분
3주	센터방문	부모 유아	부모와 유아가 함께 센터에 와서 소집단으로 교육활동을 함.	90분
4주	자료전달	부모	중재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자료를 전달하고, 며칠 후 가정에 전화하여 활동수행 여부를 확인함.	5분

가정), 다양한 집단형태(대집단, 소집단, 개별) 및 다양한 전달형태(대면교육, 전화교육 등)로 교육을 진행한다(표 2 참조). 표 3에는 12주제의 목표와 강조하는 발달 영역이 제시되었다.

2)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econd edition : Vineland-II)는 Sparrow, Cicchetti와 Balla(2005)에 의해 개발되

〈표 3〉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 및 강조 영역

주제	목 표	강조 영역
1주제	글자와 책 글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읽고 쓰기를 해본다.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여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인지 언어
2주제	숫자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찾아보고 이를 위한 상호작용을 경험해 본다. 사물의 수를 세어 보고, 모양을 분류해 본다.	인지 언어 정서
3주제	깨끗한 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청결한 습관을 기른다.	신체 정서 기본습관
4주제	꽃과 나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자연체험의 필요성을 알고 경험해 보게 한다.	신체 정서
5주제	기분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한다.	언어 사회 정서
6주제	색과 모양 여러 가지 색 이름을 알고, 기초 모양과 부분, 전체의 개념을 안다.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한다.	인지 기본습관
7주제	즐거운 나 연령에 적절한 예술적 경험을 해본다.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즐긴다.	신체 정서
8주제	도서관 도서관의 올바른 이용법을 이해하고 도서관을 방문해 본다. 도서관에서 책읽기 활동 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안다. 책을 읽어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인지 언어
9주제	자랑스러운 나 자신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낀다. 타인의 장점을 알고 칭찬하며,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기쁨을 경험한다.	언어 사회 정서

〈표 3〉 계속

주제		목 표	강조 영역
10주제	친구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가진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 좋게 지낸다. 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언어 사회 정서
11주제	안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안다. 위험한 환경적 요소와 쉽게 일어나는 사고의 종류를 인식하고,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안다.	신체 언어 기본습관
12주제	소중한 나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남자와 여자의 생김새와 기능이 다를 것을 알고 소중함을 느낀다. 유아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신체 인지 기본습관

었는데, 이는 Doll(1965)이 개발한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개정한 것이다.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는 출생부터 90세까지의 전 생애 동안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영유아의 경우는 이들의 발달 정도를 부모에게 질문하여 그 응답을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는 4개의 적응행동 영역(의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적응행동 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어 총 5개 영역으로 발달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의 측정방법을 보면, 검사 대상 유아의 연령에 맞게 지정된 문항에서

부터 질문을 시작하여 연속하여 4개의 문항을 수행하지 못할 때까지 실시하므로 모든 문항을 다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서의 기준에 따라 각 문항에 2(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1(때때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0(아니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DK(모름니다)로 점수를 기록한다. 각 영역마다 '2'로 채점된 항목이 연속적으로 4개가 되면 성립되는 하한선(basal)과 '0'으로 채점된 문항이 연속적으로 4개가 되면 성립되는 상한선(ceiling)을 정한 후 총점을 계산한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의 지침서에 보고된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86~.96, 검사-재검사 신뢰도 .50~.96, 검사자 간 신뢰도 .42~.89, 채점자 간 신뢰도 .48~.90이다. 타당도를 보면, 영역

〈표 4〉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영역	하위영역(문항 수)	사전 조사	사후 조사
의사소통	언어이해(20), 언어표현(54), 읽기와 쓰기(15)	.71	.73
일상생활기술	개인 일상생활기술(41), 가정 일상생활기술(11), 공동사회 일상생활기술(17)	.75	.75
사회화	대인관계(27), 놀이와 여가시간(24), 적응기술(14)	.86	.84
운동기술	대근육운동(40), 미세운동(36)	.84	.91
부적응행동	내현화 문제(11), 외현화 문제(10), 기타 문제(15), 심각한 부적응(14)	.77	.78
전체		.83	.83

및 하위영역 간 상호상관계수는 .68~.89이며,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와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간 공인타당도 .65~.94, 적응행동평가체계 (Adap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second edition: ABAS-II, Harrison & Oakland, 2003)와 의 공인타당도 .24~.78이다(Sparrow, Cicchetti, & Balla, 2005). 신뢰도와 타당도는 아동기까지는 비교적 양호하나, 성인기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사전조사 시 .83(하위영역 .71~.86), 사후조사 시에도 .83(하위영역 .73~.91)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표 4 참조).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시작시 실시한 기초선 조사(사전조사)와 사업 사업수행 중 실시한 1차 추후조사(사후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초선 조사는 5개 시소와그네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의 개소일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08년 5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해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추후조사는 사업수행 후 1년여가 지난 2009년 7월에서 2010년 5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센터마다 사업준비 기간이 달라 프로그램 시작일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기초선 조사 후 대략 1년 2개월에서 1년 5개월 사이에 1차 추후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1차 추후조사도 역시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해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측정점수의 일반적 경향 등은 기술통계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초선 조사의 결과와 1차 추후조사의 결과는 기초

선 조사값을 통제하고 1차 추후조사 시 그 변화량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선 조사 시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기초선 조사 시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적응행동정도를 비교하여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 결과를 차이검증하였다(표 5 참조).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영역과 연령집단에 있어서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의 기초선 조사 점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 4세 서비스집단의 유아가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에서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만 5세 이상의 비교집단 유아가 서비스집단의 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부적응 점수를 보인 것만이 유의한 차이였다. 그러므로 서비스집단과 비교 집단은 비교적 동질한 집단이라고 하겠다.

2.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의 효과성 검증

1) 의사소통 영역 결과

바인랜드 검사의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은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의 경우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후검사 점수의

〈표 5〉 기초선 조사 시 집단간 동질성 비교

구분		서비스 집단		비교 집단		t
		M	SD	M	SD	
의사소통 영역	만 3세	94.47	22.66	88.00	26.25	1.771
	만 4세	118.32	25.93	105.22	28.85	3.046**
	만 5세 이상	117.14	36.67	116.71	34.00	.068
	전체	107.80	29.96	102.54	31.72	1.829
일상생활기술 영역	만 3세	66.45	14.99	66.87	20.35	-.156
	만 4세	85.21	18.57	83.37	18.78	.618
	만 5세 이상	90.95	21.71	96.71	23.87	-1.374
	전체	78.72	20.92	81.48	24.05	-1.356
사회화 영역	만 3세	76.89	19.95	73.61	22.89	1.027
	만 4세	92.39	23.37	87.45	20.02	1.470
	만 5세 이상	96.75	28.21	99.35	26.33	-.537
	전체	86.88	24.81	86.07	25.14	.350
운동기술 영역	만 3세	91.27	22.65	87.23	26.52	1.099
	만 4세	113.23	25.87	101.72	28.55	2.704**
	만 5세 이상	108.59	34.60	110.70	30.23	-.371
	전체	102.71	29.74	99.26	29.85	1.268
부적응행동 영역	만 3세	5.22	6.95	5.52	4.85	-.347
	만 4세	5.77	6.01	5.47	4.70	.357
	만 5세 이상	7.49	6.77	4.76	4.60	2.308*
	전체	5.94	6.64	5.28	4.72	1.133

* $p < .05$. ** $p < .01$.

차이를 공분산분석 검증한 결과,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F = 3.542, p < .07$). 이 때 유의도 수준이 .07이나 사회과학에서는 경우에 따라 .10의 유의도 수준까지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유의한 신뢰도 수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언어이해($F = 8.035, p < .01$)와 읽기와 쓰기($F = 3.422, p < .07$) 영역에서 더 높은 발달을 보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세에서만 서비스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7.123, p < .01$). 의사소통능력 전체 점수뿐만이 아니라 3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만 3세 서비스집단 유아는 비교집단 유아보다 높은 발달을 보였다.

2) 일상생활기술 영역 결과

표 7에 의하면, 유아의 일상생활기술은 서비스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우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공분산분석 검증한 결과,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일상생활기술이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F = 3.979, p < .05$). 일상생활기술의 발달을 하위영역별로

〈표 6〉 의사소통 영역의 공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변량	서비스 집단	비교 집단	F
		조정된 사전 M	조정된 사후 M	조정된 사후 M	
언어이해	만 3세	27.45	31.33	29.17	6.098*
	만 4세	29.67	32.52	31.24	2.073
	만 5세 이상	30.23	34.26	32.72	2.433
	전체	28.99	32.44	30.95	8.035**
언어표현	만 3세	58.91	75.66	69.81	6.057*
	만 4세	67.45	76.20	76.86	.071
	만 5세 이상	70.56	81.51	82.54	.110
	전체	65.11	77.57	75.91	1.198
읽기와 쓰기	만 3세	4.04	15.95	13.41	5.857*
	만 4세	11.52	20.76	19.29	2.142
	만 5세 이상	16.03	23.17	23.48	.064
	전체	9.96	19.53	18.34	3.422 ⁺
의사소통 전체	만 3세	90.44	122.52	112.64	7.123**
	만 4세	109.21	128.28	127.85	.016
	만 5세 이상	116.84	138.93	138.74	.002
	전체	104.28	129.42	125.24	3.542 ⁺

⁺ $p < .07$. * $p < .05$. ** $p < .01$.

보면,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동사회 일상생활 기술이 더 발달하였다($F = 9.059, p < .01$).

일상생활기술의 발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세에서만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보다 일상생활기술이 더 증가하였다($F = 13.491, p < .001$). 일상생활기술 전체 점수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변치리에 관한 개인 일상생활기술과 공동사회 일상생활기술이 더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정 일상생활기술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사회화 영역 결과

표 8에 의하면, 유아의 사회화 능력은 서비스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사회화능력이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F = 12.606, p < .001$). 사회화능력의 발달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대인관계($F = 11.349, p < .01$) 능력과 놀이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능력($F = 9.878, p < .01$)이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화능력의 발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세와 만 4세에서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사회화능력이 더 발달하였다($F = 11.207, p < .01; F = 4.605, p < .05$). 만 3세 서비스집단 유아는 사회화의 모든 하위영역(대인관계, 놀이와 여가시간, 적응기술)에서 비교집단 유아보다 높은 발달을 보였으며, 만 4세의 경우는 대인관

〈표 7〉 일상생활기술 영역의 공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변량	서비스 집단	비교 집단	F
		조정된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사후	
		M	M	M	
개인 일상생활 기술	만 3세	46.66	59.97	54.30	15.590***
	만 4세	54.55	59.59	60.98	1.131
	만 5세 이상	57.46	64.29	65.41	.376
	전체	52.40	61.20	59.80	2.506
가정 일상생활 기술	만 3세	8.01	10.96	10.83	.026
	만 4세	10.09	12.27	12.36	.009
	만 5세 이상	13.06	14.50	14.88	.138
	전체	10.13	12.34	12.53	.126
공동사회 일상생활 기술	만 3세	11.89	22.83	19.65	12.117**
	만 4세	19.29	26.45	25.43	1.449
	만 5세 이상	24.67	29.14	28.32	.524
	전체	18.01	25.81	24.14	9.059**
일상생활 기술 전체	만 3세	66.71	93.76	84.79	13.491***
	만 4세	83.94	98.19	98.82	.071
	만 5세 이상	94.99	108.34	108.44	.001
	전체	80.57	99.47	96.42	3.979*

* $p < .05$. ** $p < .01$. *** $p < .001$.

계와 놀이와 여가시간 영역에서 더 높은 발달을 보였다.

4) 운동기술 영역 결과

표 9는 유아의 운동기술 능력의 결과를 보여 준다. 운동기술 능력은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나, 대근육운동 하위영역의 경우 연령에 따라 약간의 역전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점수차가 매우 미약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횡단적 접근방법에 의해 표집되었기 때문에 이를 역발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운동기술영역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운동기술이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F = 13.829, p < .001$). 하위영역에서도 서비스

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대근육운동($F = 14.680, p < .001$)과 미세운동($F = 8.720, p < .01$) 영역 모두에서 더 높은 발달을 보였다.

운동기술의 발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세에서는 대근육운동과 미세운동 영역 모두에서 서비스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발달을 보였다($F = 6.373, p < .05$; $F = 7.538, p < .01$). 만 4세는 서비스집단의 미세운동 발달이 더 높았으며($F = 2.758, p < .10$), 만 5세 이상의 경우에는 서비스집단의 대근육운동 발달이 더 높았다($F = 3.156, p < .08$). 사회과학에서는 경우에 따라 .10의 유의도 수준까지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유의도 수준이 .10인 것은 유의한 신뢰도 수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만 4세와 만 5세 이상의 경우는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운동기술 발달수

〈표 8〉 사회화 영역의 공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변량 조정된 사전 <i>M</i>	서비스 집단 조정된 사후 <i>M</i>	비교 집단 조정된 사후 <i>M</i>	<i>F</i>
대인관계	만 3세	37.63	44.43	41.05	7.674**
	만 4세	42.06	48.07	45.39	5.636*
	만 5세 이상	45.93	48.51	46.85	1.112
	전체	41.46	46.74	44.24	11.349**
놀이와 여가시간	만 3세	24.63	34.83	30.92	9.839**
	만 4세	30.63	37.75	35.73	3.892*
	만 5세 이상	32.45	38.15	38.01	.008
	전체	28.88	36.85	34.59	9.878**
적응기술	만 3세	12.57	16.83	14.86	4.684*
	만 4세	16.26	18.98	18.53	.193
	만 5세 이상	20.08	20.67	20.33	.083
	전체	15.93	18.59	17.72	2.077
사회화 전체	만 3세	74.85	96.10	86.83	11.207**
	만 4세	88.97	105.15	99.49	4.605*
	만 5세 이상	98.57	107.80	104.99	.607
	전체	86.34	102.45	96.42	12.606***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운동기술 영역의 공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변량 조정된 사전 <i>M</i>	서비스 집단 조정된 사후 <i>M</i>	비교 집단 조정된 사후 <i>M</i>	<i>F</i>
대근육 운동	만 3세	54.96	65.59	60.85	6.373*
	만 4세	61.26	65.46	64.14	1.939
	만 5세 이상	61.54	67.13	64.00	3.156**
	전체	58.98	66.34	62.75	14.680***
미세 운동	만 3세	33.79	49.71	44.53	7.538**
	만 4세	44.00	53.60	50.78	2.758 ⁺
	만 5세 이상	48.52	54.13	54.01	.003
	전체	41.43	52.54	49.30	8.720**
운동기술 전체	만 3세	88.75	114.97	105.57	8.084**
	만 4세	105.26	118.22	115.29	1.767
	만 5세 이상	110.07	121.37	117.97	1.022
	전체	100.40	118.69	112.14	13.829***

⁺ $p < .10$. ** $p < .08$. ** $p < .01$. *** $p < .001$.

〈표 10〉 부적응행동 영역의 공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변량 조정된 사전 <i>M</i>	서비스 집단 조정된 사후 <i>M</i>	비교 집단 조정된 사후 <i>M</i>	<i>F</i>
내현화 문제	만 3세	1.37	1.26	1.55	.836
	만 4세	1.54	1.11	1.18	.052
	만 5세 이상	1.57	1.36	1.68	.376
	전체	1.48	1.24	1.45	.938
외현화 문제	만 3세	1.84	1.61	1.89	.765
	만 4세	1.98	1.51	1.45	.031
	만 5세 이상	1.73	1.52	1.64	.078
	전체	1.85	1.55	1.66	.316
기타 문제	만 3세	1.65	1.55	1.69	.292
	만 4세	1.69	1.69	1.66	.005
	만 5세 이상	1.69	1.63	1.63	.000
	전체	1.67	1.65	1.64	.000
심각한 부적응	만 3세	.51	.34	.72	3.335 ⁺⁺
	만 4세	.87	.27	.63	3.827 ⁺⁺⁺
	만 5세 이상	.69	.65	.98	1.025
	전체	.69	.41	.76	6.535 [*]
부적응 전체	만 3세	5.34	4.84	5.79	1.330
	만 4세	5.29	3.99	4.47	.478
	만 5세 이상	5.32	3.97	5.77	2.976 ⁺
	전체	5.32	4.41	5.29	3.311 ⁺⁺

⁺ $p < .09$. ⁺⁺ $p < .07$. ⁺⁺⁺ $p < .06$. * $p < .05$.

준이 높다고는 해도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부적응행동 영역 결과

표 10에는 부적응행동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부적응행동 영역은 위의 적응행동 영역들과 달리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부적응행동은 그 특성상 연령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발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만 4세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행동 영역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집단 유아의 경우 비교집단 유아보다 부적응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311, p < .07$). 하위영역 중에서는 서비스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각한 부적응행동인 주요항목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덜 보였었다($F = 6.535, p < .09$). 이때의 유의도 수준도 유의한 신뢰도 수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응행동 영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 5세 이상에서 서비스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문제행동을 덜 보였으며(F

= 2.976, $p < .09$), 만 3세와 만 4세는 주요항목에서 서비스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덜 보였다($F = 3.335$, $p < .07$; $F = 3.827$, $p < .06$). 이때의 유의도 수준도 역시 유의한 신뢰도 수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응행동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부적응행동 영역은 적응행동 영역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내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기타 문제행동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중 보육부분의 사업인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시범지역 5개 센터에서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사업 수행 전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약 1년여 후 1차 추후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 발달정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적응행동을 촉진시켰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하위영역 중 언어이해와 읽기와 쓰기가 향상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일상생활기술이 향상되었으며, 하위영역 중 공동사회 일상생활기술, 즉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향상되었다. 셋째, 사

회화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놀이와 여가시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운동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대근육운동과 미세운동의 하위영역 모두가 향상되었다. 다섯째, 적응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인 부적응행동이 감소되었으며 하위영역 중 심각한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러 중재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효과와 유사하다. 대표적인 중재프로그램인 Head Start에 참여한 유아의 읽기 기술이 증진되었고 문제행동의 빈도와 심각성이 낮아졌으며 건강 상태도 높았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또한, 만 3세와 4세 유아의 인지능력과 건강이 향상되었고 3세는 사회, 정서영역에서도 효과가 있었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영국의 Sure Start 중재프로그램의 종단적 연구 결과(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 Taggart, 2010), 중재교육을 받은 아동이 읽기와 쓰기, 수학,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이 높고 문제행동이 적었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협동, 나누기, 공감능력), 독립심과 자기통제력이 높아졌다(Melhuish, 2009).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삼성어린이집에서는 만 3~5세 저소득가정의 유아와 부모에게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에 걸쳐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재집단 유아는 지능, 언어 능력, 사회·정서적 특성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기본생활습관도 향상되었고 초등학교의 적응도 더 높아 교사가 평정한 학업수행 능력도 더 높았다(이은혜 외, 2008). 시소와그네 사업의 모델이 된 위스타트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 결과, 영아를 대상으로 한 가

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영아의 신체발달, 자조성, 사회성, 지적발달, 의사소통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을 증진시켰다(황혜정, 2011). 유아를 위한 위스타트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중단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찬화, 2010)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발달이 증진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중단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만 3-6세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 쓰기 등의 언어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봉주 · 김남희 · 김현민, 2010).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가 많지 않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는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이 신체,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 인지, 언어 등 여러 발달영역에 고루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적응행동을 모두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또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의 조건(김명순, 2009; 김명순 외, 200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Ramsey & Ramsey, 1992, 1998, 2006; Ramey, Ramey, & Lanzi, 2001)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행동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치료적 성격보다는 예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적응행동을 촉진하는 것에 비해서 문제행동의 감소에는 효과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통해서 유아의 적응행동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부적응행동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모든 하위영역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쉬운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특성 상 서비스집단의 유아가 비교집단에 비해 발달이나 가정환경 면에서 더 열악하였다. 시소와그네 사업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지원에 목적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열악한 대상을 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수급권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집단의 기초수급자 비율(49/177명, 27.7%)이 비교집단(80/357명, 22.4%)보다 높았다. 즉 사전검사 점수 외에 다른 변인으로 서비스집단과 비교집단을 초기에 동질화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집단의 더 열악한 수준과 환경이 높은 향상을 가져오는데 저해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둘째, 기초선 조사와 1차 추후조사 시 조사원이 동일하지 않아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는 검사에 응답자의 주관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검사 지침서에 보고된 검사자 간 신뢰도도 .42~.89 정도이다. 실제로 유아에게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중재교사들이 체감하는 적응행동수준 향상에 비해 유아들의 적응행동수준이 낮게 나온 연구결과는 측정도구 상의 문제가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 사업의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서비스집단의 유아는 교육 중재 프로그램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기타 일회성 또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도 받은 경우가 있다.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만 3-6세 유아의 공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이 받는 주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시소와그네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체제 아래 문제가 있는 가정은 특별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유아에 따라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교육중재 프로그램만의 독립적인 효과보다 강화되었거나 희석되었을 수 있다.

넷째, 유아·부모 함께 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기본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자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제한 상의 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부적응 행동만을 측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사업은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었으므로 검사에 비중을 두지 못해 인지능력과 정서성을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촉진에 성과를 보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거의 모든 적응행동의 영역에서 만 3세 연령의 유아가 유의한 적응행동수준의 향상을 보였다. 만 4세나 만 5세 이상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만 3세 유아의 발달적 향상은 비교집단에 비해 괄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는 중재가 조기에 개입될수록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을 뒷받침한다(김명순, 2009; 김명순 외, 200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Ramsey & Ramsey, 1992, 1998, 2006;

Ramey, Ramey, & Lanzi, 2001). 그러므로 출생에서 취학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사업의 방향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1차 추후조사는 기초선 조사가 실시된 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년여 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업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이 있으므로 실제로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렇듯 사업수행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선 조사와 1차 추후조사까지의 시기는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볼 때 이제 막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부모가 변화하여 그 변화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육중재의 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중재는 장기적 일수록 그 효과가 뛰어나므로(김명순, 2009; 김명순 외, 200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Ramsey & Ramsey, 1992, 1998, 2006; Ramey, Ramey, & Lanzi, 2001),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유아의 발달촉진에 꾸준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 김명순(2009). 위스타트 보육·교육영역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결과 및 전망. **창립 5주년 기념 We Start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

- 근(pp. 55-89). 서울: We Start 운동본부.
- 김명순 · 이미화(2006). **포괄적 보육서비스**. 서울: 다
음세대.
- 김명순 · 김길숙 · 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
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
과 권리**, 12(2), 161-187.
- 김명순 · 정미라 · 배선영(2006). **We Start 유아용 기
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수원: 경기도.
- 김명순 · 황혜정 · 안효진(2011, 인쇄중). **영아기 예방
적 놀이중재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1**. 서울:
다음세대.
- 김명순 · 황혜정 · 유지영 · 안현숙(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수원: 경
기도.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
녀의 학교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재엽 · 이익섭 · 박수경(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
회복지정책학회지**, 6, 54-82.
- 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
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화(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
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1999). 교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5). **한국복지패널조
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원.
- 옥경희 · 김미혜 ·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
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이봉주 · 김남희 · 김현민(2010). 아동인지능력향상서
비스가 만 3-6세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효과성 평가 연구. **아동학회지**, 31
(6), 107-123.
- 이은혜 · 김명순 · 전해정 · 이정림(2008). **삼성어린이
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중단효과: 제2차년도
결과**. 서울: 삼성복지재단.
- 장혜림(2010).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개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대
회 자료집**, 5-23.
- 황혜정(2011). 위스타트(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3), 55-66.
- 황혜정 · 김명순 · 안효진 · 안현숙 · 유지영 · 김수희 ·
조수영(2009). **유아 · 부모 함께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 서울: 사랑의열매 영유아통합지원사
업 전문위원회.
- Alexander, K. L., & Entwisle, D. R. (1988). Achieve-
ment in the first 2 years of school : Patterns and
proce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18)*, 53, 2.
- Campbell, F. A., & Ramsey, C. T. (1994).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on intellectual and academic
achievement :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684-698.
- Corcoran, M. (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21(2), 16-20.
- Doll, E. A. (1965).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Edwards, P. A. (1989). Supporting lower SES mothers'
attempts to provide scaffolding for book reading.
In J. Allen & J. Mason (Eds.), *Risk makers, risk
breakers : Reducing the risks for young literacy
learner* (pp. 222-250). Portsmouth, NH : Heinemann.
- Harrison, P. L., & Oakland, T. (2003). *Adap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2nd ed.). San Antonio,
TX :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Heckman, J. J., & L. Lochner. (2000). Rethinking myth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In S. Danziger & J. Waldfogel (Eds.), *Securing
the future :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NY : Russell Sage.

-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elhuish, E. (2009). Sure Start in England and results of evaluation. *The Start programs in th world : Innovative practices with children in poverty*, Korea, 136-159.
- Nievar, M. A., & Luster, T. (2006). Developmental processes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 An application of McLoyd's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2), 320-331.
- Ramsey, C. T., & Ramsey, S. L. (1998). Early intervention and early experience. *American Psychologists*, 53(2), 109-120.
- Ramsey, S. L., & Ramsey, C. T. (1992).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with disadvantaged children : to what effect?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31-140.
- Ramsey, S. L., & Ramsey, C. T. (2006).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s : Principles of effective and sustained benefits from targeted early educational programs. In A. K. Dickinson & S. B. Neuman (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New York : Guilford.
- Ramey, S. L., Ramey, C. T., & Lanzi, R. G. (2001). Intelligence and experience. In R. J. Stenberg (Ed.), *Environmental effects on cognitive abilities* (pp. 83-115). Los Angeles, CA : Erlbaum.
- Schweinhart, L. J., Barnes, H. V., & Weikart, D. P. (1993). *Significant benefits :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Monographs for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No. 10. Ypsilanti, MI :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 Sparrow, S. S., Cicchetti, D. V., & Balla, D. A. (2005).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econd edition, Survey forms manual*. Mineapolis, MN : Pearson Assessments.
-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 Taggart, B. (Eds.) (2010). *Early childhood matters : Evidence from the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project*. London : Routledge.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Head Start impact study : First year findings*. Washington, DC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 Final report*. Washington, DC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Waldfoegel, J. (2006). *What Children Need*.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http : //westart.joins.com/](http://westart.joins.com/)

2011년 5월 2일 투고, 2011년 7월 10일 수정
2011년 7월 28일 채택